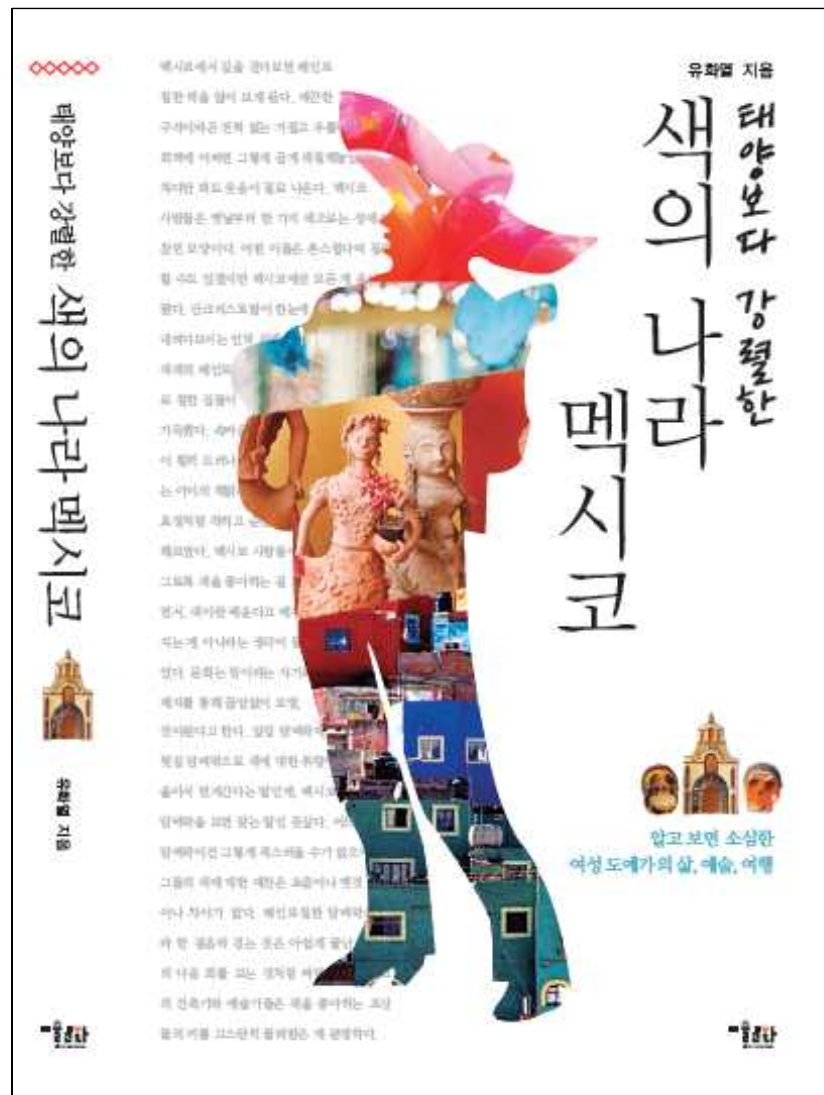


문화예술 | Latin American Culture

태양보다 강렬한 색의 나라 멕시코

유화열



멕시코에서 7년을 살다가(1991년부터) IMF가 일어났던 그 추운 겨울에 한국에 돌아왔다. 난 왜 이렇게 상황을 내다보는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운이 없는 건지……. 그때의 한국은 당장의 삶이 너무 급했던지라 주변의 다른 나라를 돌아볼 여력이 없었다. 언론에 비춰진 멕시코는 우리보다 얼마만큼 못한 곳이라는 비교 수치를 보여주는 곳으로 이용당할 뿐이었다. 그 무렵 미용실에 갔던 일도 잊히지를 않는다. 미용사는 내 머리를 한참을 들춰보더니 어디서 커트를 했냐고 물었다. 멕시코에서 했다고 하니깐 깜짝 놀라면서 커트 수준이 어떻다느니 한참을 늘어놓았다. 미용사는 형편없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멕시코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알고 싶지도 않으면서 나온 그 말은 편견이었고 세상의 미디어가 던져준 인식의 산물이었다.

난 유행에 맞춰 빨리빨리 적응하지 못한다. 만약 내가 유행에 민감하고, 좀 더 현실적인 인간형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멕시코미술이 아닌 다른 것을 집어들었을 텐데, 난 그러지를 못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미련하다고 여긴 적이 많았다.

이 책은 출판시장에서 인기가 있는 소재도, 그렇다고 독자의 요구가 빗발쳐서 나온 것도 아니었다. 어떤 한 사람이 ‘나 이렇게 멕시코 미술을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소개하고 싶어요’라고 고집을 부려서 나온 책이다. 맨 처음에 이 책의 아이디어를 들고 찾아간 곳은 한길사였다. 어떤 산속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편집자와의 미팅은 아주 즐거웠고, 작곡을 전공했다는 그녀는 사람의 감성을 관광지의 지도처럼 펼쳐내는 능력이 있었다. 그렇게 한참을 수다를 떨고 나온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온다. 아주 오래된 그녀의 프라이드 자동차에 시동을 안 켜다는 참담한 현실이 펼쳐졌고, 그녀는 늘 있는 일처럼 화장품 가방에서 여분의 자동차 키로 문을 열어 그제야 시동을 켰다. 그때만 해도 이 책의 앞날은 핑크빛이었다. 하지만 몇 달 후에 그녀는 퇴사를 했고, 그 다음 편집자와의 미팅은 예전과는 다른 방향과 방식으로 이끌어졌다. 책이란 원래 작가가 쓰는 것이지만 출판경력이 전무할 때는 편집자의 목소리가 커질 때가 있다. 버스를 타고 가다 그녀의 전화를 받았을 때 그녀는 아주 많은 부분 고쳐야한다고 말했다. 그때의 느낌이란 중·고등학교 때 시험기간에 집에

돌아가는 버스를 탄 것처럼 마음이 무거웠다. 머지않아 그녀는 외국으로 공부하러 떠나면서 내 원고는 일단은 보류되었다고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사실 나도 이 원고를 잊고 지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산다는 것은 정신을 번쩍 차려야하는 것이었으며, 더 이상 멕시코의 길거리에서 나를 감동시킨 아코디언 소리는 들려오질 않았다. 시간은 감성을 무미건조하게 만들었고 그리워하지도 않게 만들었다. 2011년 한길사에서 『라틴현대미술 저항을 그리다』(유화열 저)가 출간되면서 이 책은 미술문화와 계약하게 됐다. 어떤 책은 출판사와 계약하고 수월하게 출판기간을 지키는 경우도 있지만 이 책의 운명은 타고나기를 고생하는 팔자였던가 보다. 미술문화에서도 여러 번의 부침을 겪고 나서 세 번째 편집자에 이르러서야 출간될 수 있었다. 이 책을 쓰고 싶다는 작은 욕망이 생긴 후로 만 십년이 걸려서야 드디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었다. 맨 처음에 만난 편집자와 이 책의 방향을 이렇게 정했다. 옆집 아줌마에게 멕시코미술을 아주 쉽게 전달할 수 있어야하고 그러면서 미술의 전문 영역을 전달할 수 있어야한다는 것. 글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이 기획의도가 얼마나 어려운가는 직접 고생을 해서야 알 수 있었다.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먹어본 음식을 주문하고, 입어봤거나 그 비슷한 옷을 쇼핑하듯이 아주 익숙한 것들의 지루한 반복이 우리가 향유하는 문화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우리와 아주 다른 문화, 우리가 잘 모르고 경험하지 못한 문화에 대해서 쉽고 재밌게 소개한다는 것이, 멕시코미술을 좋아한다는 열정만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이런 저런 부침 끝에 나왔다고 해서 이 책이 아주 잘된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독자들 가운데 멕시코미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이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이들이 더 많다보니, 이 책은 아주 기초부터 얘기할만한 다양한 모든 것을 다루고 있다. 멕시코에 미술유학을 간 필자의 행적을 따라 멕시코사람들의 일상은 어떻게, 미술학교는 어떻게, 누가 유명한 예술가이고, 여행은 어떻게... 마치 물 위에 떠있는 수많은 일사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주장해야하는 형국이었다. 어쩌면 그런 과정 때문이었는지 책의 제목을 정하기가 아주 어려웠다. 내가 멕시코미술에 대해 갖고 있는

느낌을 한 단어로 축약할 만한 것을 끝내 찾지는 못했다. 『태양보다 강렬한 색의 나라 멕시코』는 미술문화 편집부에서 붙여준 것이었고, 나는 그것에 대해 수궁했다. 왜냐면 내가 갖고 있는 멕시코에 대한 이미지는 7년 동안의 삶이라서 한 단어로 접혀지지 않았다. 나와 같이 원고, 이미지 작업과 편집과정을 거친 동료들의 입김이라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 책에 실린 프롤로그를 인용하면서 책을 소개하는 이 글을 맺을까 한다.

버릴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남들이 좋다는 것에 괜히 시비를 걸었다. “왜 유학을 꼭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야하는 건데? 그런 게 어디 있어!” 대학을 갓 졸업했을 때니, 그 나이엔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그렇지만 이십대의 난 현실 감각이 없는데다가, 막무가내로 원하는 걸 손에 넣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것 같다. 사십 대 후반이 된 지금은 그때 뭐가 문제였는지 훤히 보이는데, 그땐 왜 그렇게 안 보였을까? 그렇지만 멕시코에 미술유학을 떠난다는 것은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도 멕시코 미술에 대해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던 1991년에 말이다.

멕시코에서 유학을 했다고 하면, 정말이지 많이 듣는 질문이 있다. “아니, 어떻게 멕시코에 가게 됐어요?” 몇 년 전만 해도 “남편이 멕시코에 고대사 공부를 하러 가세요, 저도 엉겁결에 멕시코에서 미술을 공부하게 됐어요.” 이렇게 간단히 답하면 모두들 수궁하곤 했다. 그렇지만 그와 헤어진 후엔 이런 질문이 너무 싫어졌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워졌다. 피할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내가 하는 일이 멕시코 미술, 라틴아메리카 미술에 관한 것이다 보니,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 때로는 그동안 해왔던 공부도 때려치우고 싶을 정도였고, 어떨 때는 머릿속을 컴퓨터처럼 포맷이라도 하고 싶었다. 그래도 어쨌라, 비유가 웃기긴 하지만 배운 게 도둑질

이라고 머릿속은 이미 멕시코 미술에 물들어 있는 것을…….

힘들더라도 잠시 참으면 지나간다는 것을,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른 고민에 집착할 것임을, 나이 들어가면서 하루하루를 통해 알게 됐다. 처음 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조형작가로서 멕시코와 그곳의 삶, 미술에 대해 속속들이 써내려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막상 글을 써놓고 보니 내 삶은 글로 말하려 했던 것과 너무도 달라져 있었다. 자꾸만 가리고 덧칠을 하다 보니, 글 속의 나는 어느덧 사라지고 말았다. 이렇게 된 마당에 힘들게 과거를 끄집어내야 하는 이 글을 덮어버릴까도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쓰레기를 버리러가다가(냄새나는 쓰레기통 앞에 서면 겸손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입버릇처럼 늘 멕시코 미술을 사랑한다고 하고 내 영혼은 멕시코에 잠식되었다고 말해왔건만, 정작 내가 멕시코 미술을 위해 한 게 딱히 없었다. 멕시코 미술에 큰 빛을 져놓고 말이다. 사람들이 멕시코에 뭐 하러 갔냐고, 심지어는 멕시코로도 유학을 가냐는 질문에 시원하게 한 방 날려줄 만한 멕시코 미술 책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 글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거대한 산처럼 크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글쓰기가 멕시코에 대한 나의 아프고도 찬란한 추억들과 함께 완성되었다. 순리를 따르는 우주적 인종 메스티소가 사는 나라, 조급해 하거나 서두른다고 꿈쩍도 않는 나라가 바로 멕시코인데, 이 책이 나오는 과정도 그렇게 멕시코를 닮아 있다.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고도 이런저런 사정으로 꽤 시간이 흘렀다. 하도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라 글을 쓸 때와 달라진 점들도 더러 있겠지만 그때그때 달라지는 물가보다는 변함없는 멕시코의 본질에 집중해서 봐주시기만을 바라며 멕시코에서의 내 소중한 삶과 예술의 기록을 세상에 내보낸다.

유화열 —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LLILAS) 방문학자